



신간 소개

때론 정말 남이고 싶지만 남일 수 없는 이 관계, 엄마와 딸

〈남남〉 언제나처럼 웃음과 눈물로 대단원!

정영룡 글·그림

128×188mm | 276쪽 | 1만 6000원 | 2024년 7월 31일 | 문학동네

내 일기장보다 더 내 이야기 같았던 은미와 진희의 이야기

2019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2021년 단행본 1권이 출간되었던 〈남남〉이 단행본 6권으로 완결되었다. 정영룡 작가가 그린 〈남남〉은 대책 없는 엄마 은미와 그가 학창 시절 낳은 딸 진희의 좌충우돌, 우당탕탕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연재 1년 차였던 2020년 오늘의우리만화상에 선정되었던 만큼 독자들의 사랑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만화다. “입체적인 캐릭터와 디테일한 생활감이 매력적인 작품으로, 성인 여성의 삶을 디테일하게 묘사했고 생활 웹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평한 당시의 선정 이유처럼 〈남남〉은 ‘엄마의 자위’를 목격한, 아니 목격해버린 딸이라는 솔직한 에피소드로 시작하여 내 곁에 살아 숨쉬는 듯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캐릭터로 공감을 자아냈다. 2023년 전해진, 최수영 배우 주연의 드라마 역시 절찬리 방영되어 매니아 시청자층을 만들었다.

5권에서는 캐릭터들의 사랑과 이별이 주를 이루며 이야기의 대단원으로 다가간다. 동네친구 한결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낀 진희는 본격적으로 대시를 시작하는 한결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린다. 한 번도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



신간 소개

던 진희지만 한결과 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연애 전선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회사생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달릴 수 있을 때까지
힘차게 또 힘차게, 계속 뛰어보는 거야**

한편 은미는 오래된 연인 진홍과의 관계가 위태롭다. 동거도 결혼도 아닌 중년의 연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건강 적신호와 친구의 귀농 등 인생은 살아도 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다른 ‘당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고,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도 끝이 나기 마련.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은 정영룡 작가가 완결 후기에 남긴 듯 “늘 시작”이다. ‘완결이 대수냐’는 듯 웃음으로 마무리한 이 기막힌 수미상관 결말이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다. 인생은 속도만 다를 뿐 같은 레일을 걷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

작가 정영룡 글·그림

만화가. 2015년 웹툰 <알아집니다>로 데뷔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카카오웹툰에서 <남남>을 연재, 2020년 오늘의우리만화상을 받았다.



▲▲ <남남 5>

▲ <남남 6> 출처:문학동네